

opusdei.org

11월 22일, 오푸스데이 신자 18명이 마카오 교구님 이분상 주교로부터 부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새 부제들은 12개국에서 왔습니다.

2025-11-16

11월 22일 토요일, 오푸스 데이 소속 18명의 신학생들이 마카오 교구장 리

분상(Stephen Lee Bun-Sang) 주교로부터 부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서품식은 로마 성 유진 대성당에서 오전 10시 30분에 거행됩니다.

4명의 부제는 나이지리아 출신이며, 다른 4명은 스페인 출신, 나머지 10명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카메룬,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과테말라, 이탈리아, 케냐,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나이지리아 출신 앤서니 모마(34)는 화학 공부를 마친 후 산업기술연구소(IIT)에서 프로그램 조정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 연구소는 중등 교육을 마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는 개발 중인 농촌 지역 사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NGO)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조시마르 페레이라 프레이타스(브라질 캠퍼스 두스 고이타카제스 출신)는 토목공학자입니다. 브라질 주요 전력 사업체에서 근무했으며, 이 시

기 오푸스데이 부속 회원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후안 마르틴 기스몬디(40세,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아드로게 출신이다. 멘도사와 코르도바에서 대학 기숙사 교육 책임자 및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계사로도 일했다.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데 톨레도(마드리드 출신)는 저널리즘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병행하며 오푸스 데이 웹사이트 콘텐츠 편집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글쓰기에 열정을 품고 있으며, 특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트레인저스 씽즈’ 같은 시리즈를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makao-gyogunim-ibunsang-
jugyorobuteo-buje-seopumeul-badge-
doebnida/ (2026-4-2)